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발언

### [1.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손병두입니다.

금주 화요일 정부는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100조원+@를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과감한 조치의 뒷면에는  
글로벌 경제·금융상황에 대한  
엄중한 인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은 감염병發 미증유(未曾有)의 위기상황입니다.

감염과, 감염에 대한 우려로 인해  
소비·생산 활동이 둔화되었고,  
교역감소와 글로벌 공급망 교란이 더해져  
실물부문의 급격한 위축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계 경기침체 우려가 금융시장에 先반영되면서  
금융시장 변동성도 확대되었습니다.

코로나19의 계속되는 국제적 확산은  
앞으로 가져올 경제적 영향의  
폭과 강도를 가늠하기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우리 정부는  
“기업을 살리고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그 시작이 바로 100조원+@의 안정화 대책입니다.

구체적인 규모와 내용이 발표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하고 정확한 집행입니다.

오늘 14개 유관기관이 컨퍼런스 콜을 통해  
이렇게 모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초저금리대출, 채권시장·증권시장안정펀드 등  
다양한 수단을 차질없이 준비·집행해 나가겠습니다.

## **[2.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보증 등 지원]**

처음 금융부문 대응방안을 발표한 2.7일부터 3.24일까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약 15.2만건, 13.4조원 이루어졌습니다.

\* [참고] 금융지원 추이 (누적규모)

	3.3일	3.13일	3.24일
신규 대출·보증	1.4만건, 1.1조원	4.6만건, 3.0조원	9.2만건, 6.1조원
(신규 대출)	(1.1만건, 0.8조원)	(3.3만건, 2.3조원)	(6.6만건, 4.8조원)
만기연장·원금상환유예	1.6만건, 1.3조원	3.1만건, 3.1조원	5.3만건, 6.9조원
기타 (금리우대 등)	0.2만건, 0.1조원	0.4만건, 0.3조원	0.7만건, 0.4조원
합계	3.2만건, 2.5조원	8.1만건, 6.4조원	15.2만건, 13.4조원

❶ 그러나, 급증한 자금수요로 인한 지신보 보증심사 지연 등  
현장의 애로사항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간 금융권 인력 파견 및 채용지원,  
은행으로의 업무위탁 확대 등 여러 노력을 기울였지만,  
당장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이 만족할 수 있을 만큼  
기간을 단축시키지는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신보로 쏠린 자금수요를 일부 분산시키기 위해  
일정금액 이하 보증에 대해  
신보 보증대상 업종을 확대하고,  
해당 보증심사 전체를 은행에 위탁할 수 있도록  
빠른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②원활한 금융지원을 위한 노력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현장의견을 집중 청취하는 금융현장소통반도 가동하겠습니다.

특히 금융감독원의 지방지원을  
금융현장소통반으로 편입하여,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장지원체계를 갖추겠습니다.

⑥다음주 수요일(4.1일)부터  
1.5% 수준의 시중은행 대출이 출시되고,  
소금융권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가 시작됩니다.

지원방안에 동참해주신 수많은 금융회사들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차질없는 집행을 위한 최종 준비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 [ 3. 금융시장 안정 지원 ]

채안펀드·증안펀드 등 금융시장 안정화 수단도  
신속하게 집행체계를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방안발표 직후

①채안펀드 투자리스크 관리위원회를 개최(3.24일)하여  
3조원 규모의 Capital Call을 결정했습니다.  
이르면 4.2일부터 회사채시장에 자금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펀드의 약정규모를 2배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논의도 본격 개시했습니다. ('08년 약정 10조원 → 20조원)

②중안펀드 역시 증권유관기관이 먼저  
7,600억원의 펀드를 출범시켰고,(3.25일)

민간부문도 출자 금융회사 협의회를 통해  
펀드형태, 운용방식 등에 대한  
마지막 조율작업을 진행중입니다.

⑥단기자금시장은 움직임이 매우 빠르고,  
유동성 불안의 시작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한국은행은,  
대책 발표 당일(3.24일) 즉각적으로  
2.5조원 규모의 RP매수를 통해  
증권업계에 유동성을 공급했습니다.

또한 시장안정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채안펀드가 본격 가동 (4.2일 예정)되기 이전인  
다음주 월요일부터 (3.30일)  
산은·기은 등이 CP·전단채·여전채 등을  
매입\*할 예정입니다.

\* 구체적 규모는 우선 채안펀드 1차 콜 규모인 3조원 범위 내에서 시행하되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결정

이에 더해 산은-신보 공동으로  
CP매입기구를 신설하여  
일시적인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CP를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시장 안정화 프로그램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시장 움직임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중시 외국인 자금동향,  
회사채·CP의 등급별 발행 및 상환 추이 등을  
정량적·정성적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일일 점검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 [4. 마무리말씀]

오늘 점검회의를 준비하면서  
“신은 디테일에 깃든다(God is in the details)”와  
“현장에 답이있다.”라는  
두 문장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최종적인 집행 과정에서 정교한 조정이 없으면  
그 효과가 반감될 수 있으며,

정교한 조정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  
전달경로에 있는 실무자들과  
정책고객 및 시장참가자들의 목소리입니다.

참석해주신 유관기관에서는  
집행 준비단계에서 추가적으로 고려해야할 사항이나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가감 없이 논의 테이블에 올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